

1일 1지문으로 수능과 내신 모두 1등급 달성 - 배인호 초격차(超格差) 국어 제공

084

新수능 국어 최적화 기출 분석

2023학년도 고3 10월 모의고사 문학 31~34 풀이시간 :

풀이 전 이해도 : 수업 후 이해도 :

화 상서 왈,

“내 아해는 행여 나를 속이지 말라.”

화 소저 대 왈,

“소녀 어찌 아주 작은 일이라도 조금이나 속이리이까. 과연 금일에 경물을 구경하고자 누상에 올랐더니, 우연히 화산 속에 약초 캐는 두 아해를 만나매 일만 가지 기이한 일이 있사와 십여 세 된 여자 약초 캐다가 애원히 통곡하니, 듣는 자로 하여금 비감할지라. 제가 듣고 비감하와 불러와 한번 보매, 실성한 병인이로되 용모 자태와 행동거지 결코 천인이 아닌고로 소회를 여러 번 따져 물은즉, 미친 체하여 세사를 알지 못한 듯하나 오히려 그 본정이 나타나는지라. 소녀 이에 좌우를 물리치고 잘 타일러 문사온즉 과연 전일 항주 추관 여장의 귀중한 딸이요, 처사 관철의 외손이라. 여 공이 소년 등과하여 벼슬이 청현에 이르렀더니, 간신이 유 상서의 문생이라 하여 편하여 항주 추관을 하였더니, 도입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 참화를 만나 혈혈한 어린 여자가 부친의 시신을 고향에 안장하고자 스스로 제 사랑집 천비가 되었더니, 용모 태도가 아주 뛰어나기로 제 사랑이 그 미색과 용모를 사랑하여 풍류를 가르쳐 기방에 보내고자 하니, 달리 벗어날 길이 없는지라. 거짓 미친 체하여 녹발을 홀어 옥 같은 얼굴을 가리고 몸소 약초 캐러 다니며 자기 신체를 생각고 통곡하니, 그 정사를 살피매 소녀가 슬픔을 이기지 못하여 자연 근심스러운 기색이 얼굴에 나타남이로소이다.”

화 공 부부가 또한 크게 놀라 왈,

LA “가히 기특하도다. 내 여아의 어진 마음이어 아름답다. 그 여자의 신세 가련하도다. 알지 못하겠구나. 그 위인이 어떠하더냐.”

화 소저 대 왈,

“입으로 다 아뢰기 어려우나 제가 비록 지식이 없사와 일찍 눈에 찬 사람을 보지 못하였삽더니, 이 여자가 만일 예사롭고 인품이 범상하오면 어찌 가까이 지내오리까. 현철한 덕성이 용모에 나타나고 추상같은 기질이 당대에 가장 빼어나며, 천고에 드문 정숙하고 유순한 여인이라. 제가 어찌 그릇 보아 부모가 주신 몸을 가벼이 하여 지기를 맺으며, 형제자매 되어 욕됨을 깨닫지 못하오리이까. 열 번 보고 백 번 헤아려도 이 같은 사람은 다시 못 보았고, 여자의 수행 스승에게 배우지 못하오나 어찌 이 같은 여중 군자와 규중 옥인을 만나 그 법도를 본받지 아니하오리이까. 제 나이 젊으니 즐겨 사제지의를 정치 아니하온지라 부득이 형제지의를 맺고, 소녀는 생일이 여씨보다 수 월이 더한고로 형이 되매, 관포지교*를 겸하고 또한 천지께 고하였사오니, 소녀가 만일 여 씨를 건지지 못하오면 마침내 세상 영육을 홀로 참여하지 아니하오려 하오니, 부디 부께서는 굽어 살피주시옵소서.”

화 공이 듣기를 마치고 크게 칭찬하여 왈,

B “내 아해는 진실로 사람을 잘 알아보는 능력이 범상치 아니하도다. 여 소저 규중 보옥이요, 네 또한 여중 호걸이라 이르리로다.”

화 소저가 예를 갖추어 일어나며 대 왈,

“소녀가 이야기가 너무 길어서 다 아뢰지 못하나이다. 혹 모친이 도우사 반드시 후일 모일 날이 있사오리니, 부께서 친히 보시면 오늘 제 말이 헛되지 않음을 알으시리이다.”

말을 끝내자 여 소저가 쓴 ㉠ 작별시를 받들어 드리며 눈물이 떨어지니, 공이 부인으로 더불어 바삐 받아 보니 필법이 정묘한 지라. 광채 유동하여 비단 위에 금수를 드리운 듯하니, 크게 놀라 다시 본즉, 재기 빼어나고 의사 광활하여 글을 쓰는 재주와 학식이 자기 여아로 더불어 비김에 한층이나 더한 듯하더라.

[중략 부분의 줄거리] 훗날 여 소저는 화 공 부부의 수양딸이 된다. 여 소저와 화 소저가 상회복과 혼약한 후, 화 소저가 천자의 후궁으로 부당하게 간택된다. 이에 화 공이 상소하나 하옥되고 여 소저가 입궐해 천자에게 항변한다.

상이 또 물어 가라사대,

“네 이제 아버지 삼년상을 마쳤거늘, 오히려 상복을 벗지 않아 선왕의 예법을 어기느뇨.”

여 소저 슬퍼하며 눈물을 흘리고 엎드려 주 왈,

“부모를 위하는 정성은 상하 귀천이 없나니, 신첩이 아버 참상을 만난 후 몸은 남의 집 종이 되고 장례 물품들을 다만 유모에게 떠나보내니, 한 번도 하늘을 부르며 목 놓아 울지 못하옵고 변변치 못한 제사마저 지내지 못하였사오니, 하늘에 사무치는 고통과 뻗속까지 사무치는 원한이 언제나 맺혔사오며, 하늘에 같은 하늘 아래 지낼 수 없는 원수를 갚지 못하였사오니, 큰 죄가 몸에 실렸는지라. 어찌 삼년상이 지났다 하고 몸에 화려한 의복을 걸치리꼬. 또 상씨 가문에 빙례를 갖춰 행함은 사세 부득이 화 모와 부녀지의 있을 뿐 아니라 화 소저와 사생을 같이하고자 하늘에 맹세하였기 때문이오니, 지금 온갖 형벌로 죽이실지라도 약속을 어기거나 지조를 깨뜨리는 것은 아니하오리니, 부디 성상은 문무왕의 성덕을 본받으사 소녀가 품은 한을 돌아보옵시고, 천하 태평하고 기후가 순조로움을 상서로 아시고 기생과 풍류를 즐기는 연회를 멀리하시면, 사방이 생업을 즐기고 국가 반석 같아 만세를 누리리이다.”

말을 마치고 다시 엎드려 두 번 절하니, 상이 듣기를 마치고 크게 감동하시고 또한 슬퍼하사 이에 조서를 내리어 화 소저를 후궁으로 간택한 잘못을 뉘우침을 일컬으시고, 즉시 화 공을 풀어 주시어 복직시키고, 또 전임 항주 추관 여장이 본주에서 칼에 베어 죽었으니, 본도 자사로 하여금 바삐 자세히 조사하여 고하라 하시고, 또 상씨 가문에 친지를 내리셔서 두 소저와의 혼약함을 택일대로 바삐 성례하라 하시니 만조 제신과 백성이 황상의 어진 덕을 일컬고, 두 소저의 의기 충언을 탄복하니, 아름다운 소문이 원근에 자자하여 모르는 이 없더라.

- 작자 미상, 「숙녀지기」 -

* 관포지교 : 우정이 아주 돈독한 친구 관계를 이르는 말.

31. 밑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화 소저는 여 소저의 내력을 듣고 그녀가 실성한 병에 걸려 그 병을 앓으며 지내 온 이유를 이해했군.
- ② 화 소저는 여 소저로부터 여자로서 수행해야 할 것들에 대해 배울 수 있다고 여겼군.
- ③ 여 소저는 자식으로서의 도리를 다하지 못했기에 삼년상이 지났음에도 상복을 입어야 한다고 생각했군.
- ④ 여 소저의 말을 듣고 천자는 화 소저를 후궁으로 간택한 일이 옳지 않다고 판단했군.
- ⑤ 천자가 여 소저의 원한을 풀어 주고자 여 소저 부친의 죽음에 대해 조사할 것을 명령했군.

32.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에서 대화 상대를 안타까워한 것과 관련하여, 상대의 사연을 듣고 [B]에서 그에 관한 배려심을 발휘하고 있다.
- ② [A]에서 대화 상대가 겪은 일을 염려한 것과 관련하여, 상대의 사연을 듣고 [B]에서 안심하는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 ③ [A]에서 대화 상대에게 요청한 인물 정보와 관련하여, 상대의 답변을 듣고 [B]에서 그 인물에 관한 평을 언급하고 있다.
- ④ [A]에서 특정 인물을 예찬한 것과 관련하여, 대화 상대의 답변을 들은 후 [B]에서 그 인물에 대한 태도를 부정적으로 바꾸고 있다.
- ⑤ [A]에서 특정 인물에 대해 궁금해한 정보와 관련하여, 대화 상대의 사연을 들은 후 [B]에서 그 인물의 행동에 대해 아쉬운 마음을 나타내고 있다.

33.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여 소저의 성격이 변화한 것에 대한 화 공의 이해를 도와주고 있다.
- ② 화 공이 여 소저에 대해 품었던 경계심을 완화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 ③ 화 소저가 소개한 여 소저의 인물됨에 대한 화 공의 생각을 강화해 주고 있다.
- ④ 화 소저가 슬퍼하는 연유와 관련하여 화 공이 품었던 의혹을 해소하는 실마리를 제공하고 있다.
- ⑤ 화 공이 기대했던 바와 다른 여 소저의 면모를 제시해 화 공이 당혹스러움을 느끼게 하고 있다.

34. <보기>를 참고하여 밑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숙녀지기」는 여 소저와 화 소저가 서로 상대의 가치나 속마음을 참되게 알아주는 '지기'가 되어 신의를 지키는 이야기이다. 두 주인공은 부모를 섬기는 마음인 효를 행실의 근본으로 삼고 인(仁), 의(義)를 구현하며 신의를 지키고 있다. 인은 타인의 불행을 자기 일처럼 여겨 타인의 아픔에 공감하며 타인을 보살핌으로써 구현되고, 의는 올바른 것에서 벗어난 것을 미워하고 올바른 것을 지향함으로써 구현된다. 두 주인공이 효를 바탕으로 인, 의의 덕목을 발휘하는 것은 유교적 덕목을 갖춘 숙녀로서의 면모를 보여 준다.

- ① 화 소저가 '슬픔을 이기지 못하여 자연 근심스러운 기색이 얼굴에 나타났다고 말한 데서 그녀가 타인의 불행을 자기 일처럼 여기는 인의 덕목을 갖춘 인물임이 드러나고 있군.
- ② 화 소저가 여 소저의 '현철한 덕성', '추상같은 기질', '천고에 드문 정숙하고 유순'함을 말한 데서 그녀가 여 소저의 참된 가치를 알아본 지기임이 드러나고 있군.
- ③ 화 소저가 '제가 어찌 그릇 보아 부모가 주신 몸을 가벼이 하여 지기를 맺으며'라고 말한 데서 그녀가 효를 행실의 근본으로 여기고 있음이 드러나고 있군.
- ④ 여 소저가 천자에게 '기생과 풍류를 즐기는 연회를 멀리하면 '사방이 생업을 즐기고 국가 반석 같게 될 것이라고 충언한 데서 그녀가 의를 지향하는 인물임이 드러나고 있군.
- ⑤ 여 소저가 '만세'를 위해 '약속을 어기거나 지조를 깨뜨리는 것은 아니하오리니'라고 충언한 데서 그녀가 천자는 타인의 아픔에 공감하는 품성을 지녀야 함을 강조하고 있음이 드러나고 있군.